

러시아 금수조치로 인한 아시아 지역 유럽산 농식품 수입동향

- ❖ 유럽은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중이었으며 러시아 금수조치를 계기로 아시아 시장을 더욱 주목하고 있음
- ❖ 러시아 금수조치 이후(8월~) 일본 파프리카, 동남아시아 과실류 시장에 유럽산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농식품 수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

- 일본의 수급부족 영향과 맞물려 유럽의 주력 수출품목인 육류(돈육), 유제품을 중심으로 유럽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파프리카는 9월까지의 영향이 없었으나 10월 이후 추석수요 등과 맞물려 한국산 공급부족에 따라 물량이 풍부한 네덜란드산 수입이 확대된 것으로 현지 관련업계 추정

< 일본의 농식품 수입실적 >

(단위 : 천톤, 백만엔)

구분		'13.8~9월		'14.8~9월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육류	전세계	295.6	140,932	356.8	183,472	20.7	30.2
	대유럽	40.8	22,915	61.6	33,382	51.0	45.7
낙농품	전세계	60.7	25,521	67.5	32,415	11.2	27.0
	대유럽	10.1	6,173	15.5	8,875	53.5	43.8
과실류	전세계	292	42,585	251.3	47,895	△13.9	12.5
	대유럽	1.3	637	1.6	893	23.1	40.2

자료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실적 >

(단위 : 천톤, 백만엔)

구분	'13.8~9월		'14.8~9월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한국산	1,711.8	787	2,073.6	796.8	21.1	1.2
네덜란드산	3,608.9	1,789.1	3,424	1,575.4	△5.1	△11.9

자료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동남아시아

○ (홍콩) 신선 사과를 중심으로 과실류 수입이 증가함

- '14.8~9월 대세계 과실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한 반면 대유럽 수입은 8% 증가

* 대세계 과실류 수입 : ('13.8~9월) 534백만불 → ('14.8~9월) 555(4% ↑)

대유럽 과실류 수입 : ('13.8~9월) 3.6백만불 → ('14.8~9월) 3.9(8% ↑)

- 특히 신선사과는 대유럽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95% 증가

* 대유럽 사과수입 : ('13.8~9월) 91천불 → ('14.8~9월) 359(프랑스 171, 벨기에 133 등)

○ (말레이시아) 대유럽 사과, 배, 키위 등 과실류 수입이 급증

(단위 : 천링깃, %)

구분	'13.8~9월	'14.8~9월	증감율
사과, 배, 마르멜로(프랑스)	200	539	170
키위(독일, 이탈리아)	0	464	-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 사과, 귤 등이 쿼터제로 묶여 있어 5월에 쿼터 신청을 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여 현재는 수입이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함

* 쿼터는 일년에 2번 배정되며 5월, 12월임

○ (싱가포르) 러시아의 유럽 금수조치로 인한 특별한 보도나 보고 자료는 없으며 유통매장 등 현장에서도 아직 유럽산의 과실이나 채소 등이 증가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단감 가격 '14.11월) 스페인 S\$8.0(2개), 한국산 S\$3.3(6개)